서 론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롬 8:22).

가. 연구의 목적과 동기

이 논문은 "기독교의 소명적 영성" (Christian vocational spirituality)을 형성하기 위한 신학적 구조를 세우는 목적으로 연구되고 쓰여졌으며, 이 논문의 실천적 목적은 개체 교회 공동체에서 교인들에게 기독교 영성을 형성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신학적 구조와 실천적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의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곤경을 이해하고, 자기 모순과 세계의 모순된 현상을 극복하여, 기독교인의 온전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구원의 길을 기독교의 소명적 영성을 통하여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세계가 전지구적 위기 상황들과 직면하고 있다. 전지구적 기후위기와 코로나 전염병의 전지구적 감염으로 경험하는 건강위기(COVID-19 Pandemic),[1] 그리고 교회와 교인들의 수가 감소되고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는 현상에서 교회의 존립 위기를 경험하면서[2] 피할 수 없게 된 물음들과 함께 이 논문은 시작되었다: 기독교인으로서, 교회공동체로서, 또한 교회 공동체의 지도력을 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전지구적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을까? 이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물음들은 오늘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회 공동체들에게 전지구적 생존환경의 위기와 교회의 존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지를 보이라고 요구한다. 이 논문은 이 도전적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기독교인의 온전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독교의 소명적 영성 형성을 위한 신학적 구조를 세우고자 한다. 이 논문이 세우고자 하는 "기독교인의 소명적 영성"은 전지구적 환경 위기와 교회의 위기를 함께 모두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1. 전지구적 위기와 인간성 상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구별없이 우리 모두는 "글로벌 위기"라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의 기분을 느끼며 살고 있다— 기후변화, 자원고갈, 국지전쟁의 일상화와 난민 발생, 식량과 건강시스템의 위기 등.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9 년 9 월 연례보고서를 발행하면서 보고서의 제목을

---

[1] 유엔 사무총장 António Guterres 가 2020 년 1 월 유엔창설 75 주년 연설을 하면서 세계를 위태롭게 하는 네 가지 위협들을 계시록 6:1-8 에 등장하는 세계가 만나게 될 재앙적 운명의 상징인 "네 명의 말을 탄 자" (four horsemen) 로 비유하였는데, 그 중 하나를 "기후위기" (Climate Change) 라고 하였다: https://www.un.org/sg/en/content/sg/speeches/2020-01-22/ remarks-general-assembly-priorities-for-2020. 그는 그 해 가을 유엔 총회연설을 하면서 앞서 밝힌 네 가가지 '말 탄 자'에 하나를 더하였다. 그 한 가지가 "코로나 팬데믹" 이었다: https://www.un.org/sg/en/content/sg/statement/2020-09-22/secretary-generals-address-the-opening-of-the-general-debate-of-the-75th-session-of-the-general-assembly; https://unsceb.org/topics/global-crises (accessed July 15, 2021).

[2] 듀크 대학교 신학교수 Stanley Martin Hauerwas 는 미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종말적 단어 "끝" "The end" 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즉 교회의 죽음에 이르는 현상이라고 표현한다: Stanley Martin Hauerwas, *Approaching the end*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Eerdmans Publishing, 2013) x.

"위험 상태에 빠진 세계" (*A World at Risk*) 라고 하였다.[3] 아직 COVID-19 바이러스가 보고되기 이전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0 년에 발행된 보고서의 제목은 "혼란에 빠진 세계" (*A World in Disorder*) 였다.[4] 이 두 보고서의 제목들은 오늘 우리 세계가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매우 잘 함축하여 드러내주고 있다. 2020 년 보고서 "혼란에 빠진 세계"는 현대문명의 발달에 맞추어 살아온 우리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도록 요청하고 있다.[5] 다시 말해, 이 보고서는 전지구적 보건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금까지 현대문명에 의존해온 인간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0 년에는 전 세계 153 개국의 11,258 명의 과학자들이 과학자로서의 도덕적 의무감에 따라 전지구적 기후위기의 긴급상황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6] 과학자들은 현대문화와 삶의 패턴들, 정부와 산업시스템, 그리고 인간 삶의 전반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7] 전지구적 위기의 시대에 나타난 공통된 화두는, 개인 적인 삶에서부터 사회와 정치 행정 등 모든 인간 활동의 공적 차원까지 과감하고 근본적인 변화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의 긴급상황들은 상호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8] 사실, 글로벌 위기,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인간 삶의 문제로부터 온 것이지 지구 자체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9] 이런 점에서 우리는 글로벌 위기를 인간성의 위기로부터 왔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10]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 현대의 인간성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

[3] Global Preparedness Monitoring Board. *A world at risk*: annual report on global preparedness for health emergencie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Licence: CC BY-NC-SA 3.0 IGO: https://apps.who.int/gpmb/assets/annual_report/GPMB_Annual_Report_English.pdf (accessed July 16, 2021).

[4] Global Preparedness Monitoring Board, *A World in Disorder*: Global Preparedness Monitoring Board Annual Report 2020.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License: CC BY-NC-SA 3.0 IGO: https://apps.who.int/gpmb/assets/annual_report/GPMB_AR_2020_EN.pdf (accessed January 14, 2021).

[5] *A World in Disorder*, 4.

[6] William J. Ripple and more, "World Warning of a Climate Emergency," *BioScience,* Vol. 70 No. 1 (January 2020) 8. https://academic.oup.com/bioscience/article/70/1/8/5610806 (accessed January 14, 2021).

[7] Ibid., 11; 유엔환경계획기구도 기후변화를 최소화 하기 위해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빠르게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Emissions Gap Report 2020* (Nairobi, Kenya: UNEP and UDP, 2020) 62: https://www.unep.org/emissions-gap-report-2020 (accesses August 1, 2021).

[8] 유엔 기후변화 연례보고서는(2020) COVID-19 와 기후변화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 산업, 소비 등 모든 분야에서 친환경적 시스템, 사람과 자연 그리고 기후를 위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Climate Change & Covid-19,"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Annual Report* 2020 (UNFCCC, 2021) 12: https://unfccc.int/sites/default/files/resource/UNFCCC_Annual_Report_2020.pdf (accessed January 14, 2021).

[9] 환경자원에 대한 보호와 회복을 위한 청지기 운동을 하는 단체 The Global Commons Alliance 가 2011 년 8 월 G20 개국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발표하였다. 응답자의 73%는 지구가 기후위기의 임계점에 (tipping points) 가까와진 것은 인간 삶의 행위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현제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전지구적 기후위기가 인간의 잘못된 삶의 행위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Global Commons Survey: Attitudes to planetary stewardship and transformation among G20 countries (2021): https://globalcommonsalliance.org/news/ global-commons-alliance/global-commons-g20-survey/; https://globalcommonsalliance.org/wp-content/uploads/ 2021/08/ Global-Commons-G20-Survey-full-report.pdf.

[10] 성명서 "World Warning of a Climate Emergency" 에서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는 과도하게 소비하는 생활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라고 진단한다 (8). 이 진술은, 유엔 기후변화 연례보고서 (UNFCCC, 2021), 유엔환경기구 보고서 (UNEP 2020), Global Commons Survey 의 보고서 (2021) 등과 함께 기후 위기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초점을

전지구적 위기들을 경험하면서, 과학과 기술발달이 인간의 보편적 행복과 성숙함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과연 과학 기술 발달에 의존된 문명이 사람의 사람 됨에 유익하기만 한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갖게 된 것이다. 20 세기에 일어난 과학 기술에 의존된 문명화와 산업 혁명은 물질 문명의 모순과 인간성의 모순을 우리의 삶 속에 극명하게 노출시켜왔다. 한스 큉 (Hans Küng)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위기의 근원적 문제를 단호하게 지적한다: "기술발달로 인간성을?" "기술발달과 함께 참된 인간성은 파괴되어왔다."[11] 큉은 기술발달로 인한 현대화 과정이 인간성 파괴의 과정이었으며, 현대에 만연한 인본주의 문화는 비인간성을 양산해왔다고 분석한다.[12]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오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명 발전의 일상적인 모순이다. 알버트 슈바이쳐 (Albert Schweitzer)는 1952 년 노벨평화상을 받으며 한 연설에서 인간성의 위기를 역설하였다: "사람이 슈퍼맨이 되었습니다. …수퍼맨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13] 슈바이쳐는 현대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 기술문명과 함께 슈퍼맨 같은 능력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참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에리히 프롬 (Erich Fromm)은 1976 년 그의 책 "소유하는 것이냐 존재하는 것이냐" (*To Have or To Be?*)에서 산업발달과 함께 우리는 또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신이 되는 길에 들어섰다고 말하면서,[14]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진정한 인간성을 상실해왔다고 말한다. 헐버트 마르쿠제 (Herbert Marcuse)는 1964 년 그의 책 "일차원적 인간" (*One-Dimensional Man*) 에서 미국의 생활방식을 분석하고 이 삶의 방식을 "일차원적 인간"이라고 정의하였다.[15] 깊이 생각하는 일 없이 살아가는 일차원적 삶이란 편안하고 안락하며 재미 있는 생활을 추구하고, 광고를 따라 행동하고 소비하며,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따라 사랑하고 미워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필요가 아닌 거짓 필요를 따라가는 패턴을 갖는다.[16] 즉 속물적 삶에 만족한다. 일차원적 삶의 패턴을 따라가는 이들은 인간성의 안에서 깊이의 차원을 잃어버린다. 대신에 그들은 피상적이며 신체적 감각에 의존하여 만족하는 생활을—웃음, 재미 있는 오락과 흥분할 수 있는 스포츠 게임들— 추구한다. 알렉상드르 코제브 (Alexandre Kojève) 는 1948 년 미국을 여행하고 미국의 생활패턴을 인간성을 상실한 동물 (animal) 로 정의하였고, 1959 년 일본을 여행한 후 일본의 문화를 속물로 정의하였다 (snobbery). 그는 헤겔의 역사철학이 말하는 인간의 로고스가 상실된 역사발전의 종말을 미국에서 보았다고 했으며, 일본 사회에서는 역사적 의미에서 인간의 내용이 모두 상실된 속물을 보았다고 했다. [17] 코제브는 미국사회에서나 일본사회에서 인간성

맞추고 있다. 이는 인간 삶의 가치와 태도에 대한 도덕적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 점에서 기후문제는 인간성 (humanity)의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 기후문제와 같은 글로벌 위기는 과학적 진단과 사실을 넘어 인간 삶의 가치와 믿음과 같은 윤리적 의미, 그에 따른 도덕적 삶의 태도가 문제 되는 것이다.

[11] Hans Küng, *On Being a Christian,* tr. Edward Quinn (Garden,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6) 40.

[12] Ibid., 42.

[13] Erich Fromm, *To Have or To Be* (New York: Continuum, 2008) 2.

[14] Ibid., 13.

[15] Herbert Marcuse, *One-Dimensional man* (New York: Routledge & Kegan Paul, 2002).

[16] Ibid., 7.

[17] Alexandre Kojève, *Introduction to the Reading of Hegel,* tr. James H. Nichols, Jr.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 1980). 159-162. 이 책은 1947 년에 발행되었는데 1969 년도 판을 출판할 때, Kojève 가 일본과 미국 여행을

실종과 동물성으로 돌아가는 인간 현상의 어두운 현실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이론이거나 또는 아직 오지 않은 가설적 현상이 아니라, 이미 확실하게 역사 안에서 경험되고 실현된 현상이었다고 코제브는 단언한다 (1969).[18] 크리스토퍼 래쉬(Christopher Lasch)는 그의 1979 년 책 "나르시시즘의 문화"를 통해 미국의 문화 현상을 "나르시시즘" (Narcissism)으로 분석하였다: "새로운 나르시시스트는 죄책감이 아니라 불안을 통해 나타난다."[19] 래쉬가 진단한 미국의 현대문화는 종교적인 죄책감보다는 불안에서 비롯된 자기도취 (Narcissism)의 상태이다. 이들은 피상적인 안락함을 추구한다. 그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그들의 실존적 문제와 직면하지 않으려 한다. 결국에는 인간적이지 않은 것, 참된 자기가 아닌 거짓된 자기를 따라 살아간다.

슈바이쳐로부터 래쉬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공통되게 오늘의 글로벌 위기에서 드러난 본질적 인간의 상실, 인간성의 타락과 오염 문제를 드러내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대담한 인간의 변화를 위한 과감한 사회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프롬의 말은 글로벌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 우리 세계에 더욱 절박한 말이다.[20] 미국 문화에 뿌리내리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교회 공동체와 기독교인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담한 인간변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진정한 기독교인의 인간성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교회의 위기와 교인의 감소

인간성 상실이 가져오는 글로벌 위기에 직면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로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로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피할 수 없다: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동물적 본능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경향과 속물 인간이 되려는 세상의 유행을 이겨낼 수 있을까?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불안한 사람들과 모순에 빠져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교회가 줄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의 교회 스스로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서 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미국 교회들은 그림 1 의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난 60 여 년 동안 교인의 가파른 감소 현상에 직면해왔다.[21] 1950 년 대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 기독교 교회도 급속하게 성장했었다.[22] 경제적 붐을 따라 교회도 붐을 이루었던 때 미국교회들은 물질로나 문화적으로

마치고 쓴 미국과 일본 문화에 대한 분석을 "Note to the Second Edition" 이름으로 이 책의 각주 (footnote) 란에 실었다.

[18] Ibid., 161.

[19] Cristopher Lasch, *The Culture of Narcissism: American life in an Age of Diminishing Expectations* (New York: W.W. Norton & Company,1991) xvi.

[20] *To Have or To Be*, 8.

[21] J. Tobin Grant, "The Decline: 60 years of religion in one graph": https://religionnews.com/2014/01/27/great-decline-religion-united-states-one-graph/ (accessed July 23, 2010).

[22] 이 시기에 일요일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미국사회의 전형적인 문화였다. 당시 갤럽 통계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높은 예배출석율을 기록했는데 미국 인구의 47%가 매주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였다 (1955-1958). 당시의 교회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친구들을 사귀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지역 문화 중심이 되었다: Robert S. Ellwood, *The Fifties Spiritual Marketplace: American Religion in a Decade of Conflict*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1997) 1-2.

풍요해보였고, 영적으로도 활력이 넘쳐보였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낙관적 문화가 확산되고 모두 만족해보였다.[23] 그렇지만 1950 년대의 종교적 붐은 1960 년대에 들어서면서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1990 년대에서 2000 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인구가 역사상 가장 많이 증가했던 시기였지만,[24] 교회의 감소는 오히려 더 가파르게 진행되었다.[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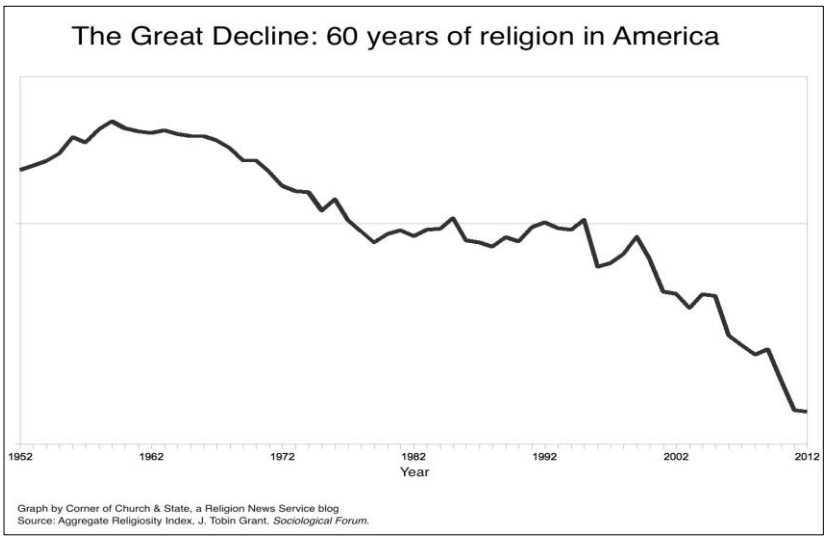

Figure 1

지난 4 년 동안 내가 섬기고 있는성 마가 교회도 그림 2 의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급격하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1950 년에 40 명의 교인으로 창립된 성 마가 교회 (St. Mark's United Methodist Church in Midland, Texas)는 석유산업 붐을 타고 석유산업 종사자들과 가족들의 유입을 따라 빠르게

[23] 하버드의 신학교수였던 Peter J. J Gomes 는 1950 년대 미국의 문화적 경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전후회복이 잘 진행되었으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경제불황을 극복했다는 자신감과 함께 문화적 낙관주의가 확산되었다. 물질적 부요함이 삶의 목표고 삶의 실재가 되었다. 미국은 이제 세계의 자유를 지켜낸 수호자가 되었고, 이 사실과 함께 미국은 안전하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나라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종교도 이러한 낙관적 문화의 붐을 따라갔다. 교회의 출석률이 급증하고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 문화가 유행처럼 번져갔다. 당시 주간 잡지 타임즈 (Time magazine)는 이러한 현상을 '거대 건물 컴플렉스라고 불렀다'": Paul Tillich, *The Courage to B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xiii.

[24] 1950 년부터 2000 년까지 50 년 동안 미국 인구는 1 억 5 천 백만명에서 2 억 8 백만명으로 약 두배로 늘었다: Hobbs, Frank and Nicole Stoops, "U.S. Census Bureau, Census 2000 Special Reports, series CENSR4, Demographic Trends in the 20th Century,"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2002). 11-12: https://www.census.gov/prod/2002pubs/censr-4.pdf (accessed July 23, 2021).

[25] 2018 and 2019 년 Pew Research Center 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65% 미국 성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10 년 전 조사의 77%보다 12%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Pew Research Center, "In U.S., Decline of Christianity Continues at Rapid Pace": https://www.pewforum.org/2019/10/17/in-u-s-decline-of-christianity-continues-at-rapid-pace/ (accessed July 23, 2021). 2021 년 보고서는 63%로 조사되었는데 2019 년 조사보다 3% 포인트 더 감소한 것이다. https://www.pewresearch.org/religion/2021/12/14/about-three-in-ten-u-s-adults-are-now-religiously-unaffiliated/ (accessed may 2, 2022).

성장하였고,[26] 창립 5 년만인 1956 년 1 월에 1,000 명의 교인이 등록하였다. 그러나 앞의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1960 년부터 교인의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계속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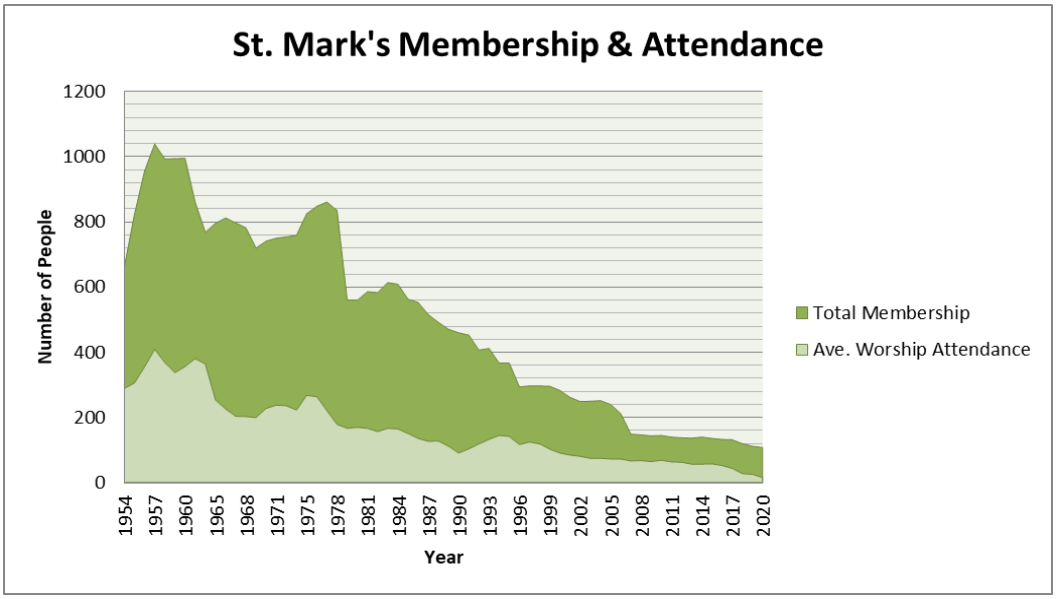

Figure 2.

앞의 두 그래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난 60 년 동안 미국 교회의 일반적 경향과 지역교회인 성 마가교회의 교인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패턴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27]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미국교회와 지역교회 St. Mark's 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1950 년대 이후 미국의 경제부흥은 계속되었지만, 경제부흥과 함께 성장한 미국의 교회는 일반적으로 1960 년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미국교회의 경향을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이 모순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경제부흥과 함께 부흥한 교회가 경제적 부와 함께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0 여 년 동안 미국사회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교인을 감소하게 만든 교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교인의 감소는 교회의 위기를 가져오게 하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교인 감소는 교회의 진짜 위기가 드러내는 현상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성직자들,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교회의 위기를 눈에 보이는 현상들, 교인 수의 감소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재정의 감소 등을 교회의 위기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의 감소에 대한 이러한 피상적 이해 때문에 Wim Dreyer 교수는 교회의 글로벌 위기에 대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무엇이 진짜 교회의 위기인가?" 그리고 진단한다: "교회의 진짜 위기는 단지 외적인 환경이나 영향에서만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교회답지 않게 하는 문제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오늘의 교회 위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1950 년대 미국교회의 성장을

[26] https://worldpopulationreview.com/us-cities/midland-tx-population (accessed July 23, 2021).

[27] Members of Northwest Texas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t. Mark's belong, has declined from 1994 to 2018: Membership 97,775 at 1974 became 52,708 at 2018; Attendance 31,759 at 1974 became 16,683 at 2018. Membership declined 54%, attendance declined 52.5%, attendance rates of membership is 32%. 이 분석을 위해 Northwest Texas 연회의 통계자료가 사용되었다.

진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교회를 성장하게 했는가? 이 질문은 또다른 질문을 불러온다: 무엇이 교회를 감소시켰는가?

1950 년대 미국교회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1958 년 폴 틸리히는 "종교의 잃어버린 차원"이라는 글을 당시 미국의 인기 높은 대중잡지 ***the Saturday Evening Post*** 에 실었다: "만약 우리가 종교를 무한한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무한한 관심의 상태를 상실하였다. 그리고 이 시대의 종교적 부흥이라는 것은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시도하는 무모한 일일뿐이다."[28] 틸리히는 1950 년대 미국의 종교적 붐을 통해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고 활기차 있었지만, 기독교 영성에서 그리고 인간성 안에서 종교적 차원의 깊이를 상실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틸리히는 1950 년대의 교회 붐을 자신의 신학적 입장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보인다. 오히려 영적으로 무의미하고 무모한 몸부림으로 보는 것 같다. 틸리히에 따르면 미국의 교회는 기독교인의 믿음에서 그리고 기독교인의 인간성에서 깊이의 차원을 잃어버린 상태로 급성장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이는 미국 문화의 피상적 현상을 보여주는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경제적 성장, 물질적 풍요, 종교적 활동의 열심을 지녔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불안하였다는 것이다. 오늘의 미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어떤가? Peter J. J Gomes 교수는 오늘 미국인의 삶을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29]

> 20 세기 말, …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물질적 번영의 시대에서, … 문화의 중심 속에는 우울하고 걱정스런 불안감이 남아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여가도 즐기지만 우리가 선조들보다 더 근면하거나 놀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의 소리에 압도되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밀리니엄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외견상 탐 울프 (Tom Wolfe)의 냉소적 표현 "우주의 주인들"처럼 보이지만, 조지 오웰 (George Orwell)이 자신의 에세이 "유원지" (Pleasure Spots) 에서 묘사하는 것보다 더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아야 하고/ 음악은 항상 연주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 지 알 수 없도록—어느 음산한 숲에서 길을 잃고; 어둠을 두려워하는 아이들/ 그들은 지금까지 결코 좋았거나 행복한 적이 없었다."

Gomes 의 분석은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미국인의 실존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다음과 같이 질문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감소와 함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 논문은 이 질문들에 답을 보여주려 한다.

3. 교회의 위기와 기독교 영성의 상실

이 논문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영성과 참된 인간성이 지닌 깊이의 차원을 잃어왔다고 본다. 교회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깊이의 차원을 상실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한다. 달리 말하면, 교회의 진짜 위기는 기독교 영성의 위기라고 진단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믿음에서 그리고 인간성에서 깊이의 차원을 잃어버린 결과 세속화된 다양한 종교들의 출현과 사이비 종교들이 유행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현상들은 기독교인들의 인간성과 기독교 믿음에서 깊이의 차원을 잃도록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다.

---

[28] Paul Tillich, *The Courage to B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0) xiv. 이후부터 *CB* 로 표기한다.

[29] *CB*, xvi-xvii.

(1) 종교활동을 피하는 사람들: 교회가 감소하는 현상과 함께 미국인들이 종교활동을 회피하는 경향이 아래의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2000 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 년에 발행된 PRRI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적 활동을 피하는 사람들이 미국사회에서 가장 큰 그룹으로 나타난다. 1991 년 설문에서 자신을 종교적 활동을 회피하는 것으로 자신을 밝힌 비율이 미국 인구의 6%였으나, 2000 년대 후반과 2010 년대 초반에는 20%, 2016 년에 이르면 25%로 증가한다. 젊은 층에서는 (18-29 세) 39%가 종교적 활동을 피하고 있다.[30]

종교적 활동을 멀리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경향은 종교적 전통에 속한 사람들에 비하여 덜 종교적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완전하게 세속화된 사람들은 아니고 종교적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Pew Research Center 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보편적인 영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어느 특정한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그 중에 더러는 종교적이지도 영적이지도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로 "영적이기는 하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로 이해될 수 있다.[31]

종교학 교수인 Robert C. Fuller 는 그의 책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Spiritual, but Not Religious* (2001) 에서 미국인의 정체성을 분석하였다. 미국인들은 공적인 영성보다는 사적인 영성의 경향을 갖는다 (교회생활을 하지 않는 기독교인과 같은 의미). 그들의 정체성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라고 정의된다. 이 들은 영적 감각을 갖고 있으나 교회공동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종교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교회와 회당이 그들의 종교에서 영적인 부분을 상실해왔다고 믿는다.[32]

2021 년 7 월에 발간된 PRRI 의 2020 년 미국 종교 통계 보고서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미국인들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자신을 종교활동을 피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수는 조금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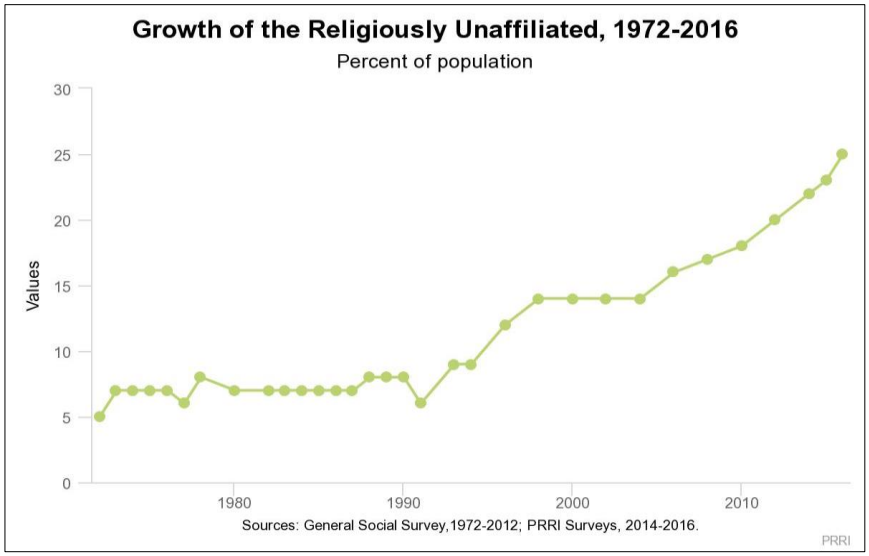

Figure 3

[30] Robert P. Jones, Daniel Cox, Betsy Cooper, and Rachel Lienesch, *Exodus*: *Why Americans are Leaving Religion—and Why They're Unlikely to Come Back* (Washington D.C.: PRRI, 2016) 2: https://www.prri.org/wp-content/uploads/2016/09/PRRI-RNS-Unaffiliated-Report.pdf (accessed July 12, 2021).

[31] "Religion and the Unaffiliated": https://www.pewforum.org/2012/10/09/nones-on-the-rise-religion/ (accessed July 12, 2021).

[32] Robert C. Fulle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5.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2018 년 25%에서 2020 년 23%, 젊은 층에서는 2016 년 38%에서 2020 년에 36%로 줄어든 것이다.[33] 이 보고서는 종교활동을 피하는 이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교회 밖에서 여전히영적으로 목마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새로운 기독교 영성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물음을 갖게 된다: 어떻게 교회는 새로운 영성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보여주고자 한다.

(2) 세속화의 경향: 사회학자들은 교회의 감소현상에 대하여 "세속화" 이론으로 응답해왔다. 영국 사회학자 Steve Bruce 는 세속화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세속화라는 개념은 사회적 구조와 문화 안에 일어나는 큰 변화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자 한다. 즉 인간 생활의 중심에서 종교의 자리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34] 달리 말하면, 인간 삶에서 종교의 사회적 중요성과 기능이 현대화 과정에서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35] 이러한 과정에서 종교는 삶의 필수가 아니라 하나의 선택 사항이 되는 것이다.[36] 기술발달은 인간의 능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인간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게 한다.[37] 이러한 현상을 따라 사람들의 인식에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영역이 사라지고 있으며, 사회 안에서 종교의 권위 또한 약화되고 있다.[38] 미국 Duke 대학의 종교 사회학 교수인 Mark Chaves 는 세속화를 종교적 권위가 감소하는 영역으로 설명한다: "세속화에 대한 최상의 이해는 종교의 감소가 아니라 종교의 권위가 감소하는 영역이다."[39] 벨기에 종교사회학자 Karel Dobbelaere 는 세속화의 다차원성으로서 다음과 같이 세가지 차원을 말한다: 환속/laicization, 내부적 세속/internal secularization, 종교적 비관여/religious disinvolvement. 환속은 정치 교육 과학등과 같은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종교기관으로부터 벗어나는 현상이다. 그 결과 종교가 그들과 같이 사회 안에 있는 하나의 기관이 되는 것이다. 내부적 세속은 교회가 스스로 세속화된 세계에 맞추어 변하는 과정이다. 종교적 비관여는 개인적인 종교적 믿음과 삶이 비종교화 되는 과정이다.[40]

Chaves 와 Dobbelaere, 두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교회 밖에서 밀려오는 세속화 물결에 저항하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자발적으로 세상의 세속화 과정을 따라갔다는 점도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교회는 영성의 깊이와 권위 그리고 이 세계 안에서의 사회적 영향력도 상실해왔다. 이 점에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갖는다: 교회가 세속화된 이 세계에서 어떻게 기독교 영성의 본래적 뿌리를 회복하고 지킬 수 있을까? 이 논문은 이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

[33] PRRI, The 2020 Census of American Religion (Washington D.C., 2021) 9-10: "The American Religious Landscape in 2020": https://www.prri.org/research/2020-census-of-american-religion/ (accessed August 5, 2021).

[34] Steve Bruce, *Secularization: In Defence of unfashionable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1.

[35] Steve Bruce, ed., *Religion and Modernization: Sociologists and Historians Debate the Secularization The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11.

[36] Ibid., 130.

[37] Ibid.

[38] Volkan Ertit (Department of Sociology, Aksaray University, Turkey) understand secularization as "The Decline of the Supernatural Realm": Volkan Ertit, "Secularization: The Decline of the Supernatural Realm," *Religions* 2018, 9(4), 92: https://www.mdpi.com/2077-1444/9/4/92/htm (accessed July 23, 2020).

[39] Mark Chaves, "Secularization as Declining Religious Authority," *Social Forces*, March, 1994, Vol. 72, No. 3, pages: 749-774 (Oxford University Press, March, 1994) 750: https://www-jstor-org.proxy.libraries.smu.edu/stable/2579779?seq=1#metadata_info_tab_contents (accessed July 23, 2020).

[40] Ibid., 757.

(3) 종교적 다원주의 경향: 세속화 과정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God)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되었고, 기독교는 다양한 종교들이 모여있는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41] 종교다원주의 문화에서 다양한 대체신앙 혹은 유사종교들이 나타나고, 그 유사종교들의 확산으로 기독교인들의 정체성도 모호해지고 있다. 세속화된 형태로 종교적 모양을 한 정치종교인[42] "시민종교" "Civil religion" 가 대표적으로 미국 기독교인들과 교회에 깊고 광범위하게 젖어들었다.[43] 미국의 시민종교는 기독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기독교인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미국시민종교를 기독교로 알거나 현대화된 기독교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철학과 정치과학 교수인 Glenn Moots 는 미국 시민종교는 개신교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기독교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국인들은 시민종교라는 어항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와 같다. 그러나 기독교가 아니다. 그 물고기들은 그들 자신들이 시민종교라는 물에 젖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오히려 시민종교는 가짜 종교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국가종교로서 무분별한 중앙집권적인 제국적 야망을 정당화 하기 위해 유사신학을 제공하는 이단 종파의 하나가 되고 있다.[44]

20 세기 미국에서 대중적 심리학이 기독교적 유사종교 "심리적 영성"이라는 유행을 만들었다. 이 유행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전통적 종교 의식을 떠나게 만들었다.[45] 1952 년 Norman Vincent Peale 은 "긍정적사고의 능력"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미국의 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되었다.[46] 수정교회를 (the Crystal Cathedral) 설립한 Robert Schuller 는 "긍정적 사고의 능력"이라는

---

[41] "미국 기독교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다. 수백개의 기독교 교파가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또는 어느 그룹도 모든 기독교인을 올바르게 대표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더나아가 종교적 다양성은 기독교를 넘어서 확산되고 있다: 유대교, 무슬림, 불교, 힌두교 등, … 미국은 세계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다양한 국가이다": Boisi Center for Religion and American Public Life, "Religious Pluralism in the United States," vol. 1 of *the Boisi Center Papers on Religion in the United States* (Boston college, 2007) 2: https://www.bc.edu/content/dam/files/centers/boisi/pdf/bc_papers/BCP-Pluralism.pdf (accessed July 23, 2021).

[42] Emilio Gentile (Professor of Contemporary History at La Sapienza University in Rome)는 세속종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시민종교와 정치종교들은 세속종교의 일반적 현상의 좋은 예다." "정치만 이 세속종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에서 역사까지, 또는 오락에서 스포츠까지 어떤 인간의 활동도 "세속 성례전"의 기능이 될 수 있으며, 세속적 예배의식의 대상이 되어 세속 종교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에서 세속종교라는 말은 시민종교나 정치종교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Emilio Gentile, *Politics as Religi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1: Chapter I: "A Never-Never Religion, A Substitute for Religion, or A New Religion?": http://assets.press.princeton.edu/chapters/s8195.pdf (accessed July 23, 2021).

[43] 전 미국 대통령 Donald Trump 는 2016 년과 2020 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시민종교"를 잘 활용하였다: Brennan Breed (Professor of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Trump and the Transformations of Civil Religion": https://www.ctsnet.edu/at-this-point/shifting-cultures/ (accesed July 13, 2021). Breed 는 "백인 복음주의는 지금 묻지마 공화당 편이다" 라는 글을 뉴욕 타임즈에 실었다 (the New York Times of January 20, 2021). Bradley Onishi (a professor of religious studies at Skidmore College) 는 2021 년 1 월 6 일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을 지켜보고 "트럼프의 새로운 시민종교"라는 글을 뉴욕 타임즈에 실었다: https://www.nytimes.com/2021/01/19/opinion/trump-lost-cause.html (accessed January 20, 2021). Marcia Pally (a Professor at New York University in Multilingual Multicultural Studies and a permanent Fellow of the New York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는 "도날드 트럼프: 미국의 시민종교 사도" 라는 글을 썼다: https://www.abc.net.au/religion/donald-trump-apostle-of-americas-civil-religion/10096340 (accessed July 13, 2021).

[44] Glenn A. Moots, "The Protestant Roots of American Civil Religion" *Humanitas,* Vol. XXIII Nos, 1 and 2 (2010) 78-80: https://css.cua.edu/wp-content/uploads/2018/06/moots-Protestant-Roots.pdf (accessed July 23, 2020).

[45] Robert C. Fulle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124.

[46] Ibid., 146-147.

이름으로 기독교 영성을 TV 쇼로 만들어냈다.[47] "긍정적 사고" 라는 유행은 심리적 안정과 자기개발이라는 욕구를 종교적 용어를 혼합하여 동시대 중산층의 욕구에 부응한 결과다.[48] 이러한 유행은 1970 년대와 80 년대에 걸쳐 "번영복음"이라는 교회의 유행을 만들었다. 지금은 텍사스 휴스턴의 Joel Osteen (Lakewood Church) 이 번영의 복음과 웰빙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49]

미국에서는 스포츠 산업도 강력한 유사종교가 되었다. 열광적인 관중들은 경기장 관중석에서 특정한 선수와 팀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예배 의식을 갖는다.[50] 자본주의 시장 또한 "시장의 종교"가 되었다. 시장의 물건들이 사람의 가치를, 믿음을, 문화를, 삶의 스타일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창조한다.[51] 시장종교는 미국인을 자본주의 소비자로 양육하고 시장숭배자로 만들고 있다. 그들은 시장신을 예배하기 위해 시장으로 가며, 시장의 가치와 믿음과 유행을 영접하기 위하여 시장으로 간다.[52] 이와같은 자본주의적 문화는 사람들을 살기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기 위하여 살도록 이끈다. 이러한 문화는 사람들을 시장의 노예처럼 살도록 이끈다.[53]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오늘의 미국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다원주의 문화 속에서 자기의식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논문은 기독교 영성을 근원을 보여주고자 한다.

오늘날 미국의 종교 문화를 경향을 분석하면서— 종교활동의 회피, 세속화, 종교적 다원주의와 다양한 유사종교들— 기독교의 영성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위기를

---

[47] 1953 년 이후 현대화된 교회의 상징으로 불려졌던 수정교회 (Crystal Cathedral) TV 스튜디오 교회로도 불리워졌는데 2010 년 은행파산을 통해 문을 닫았다: https://www.washingtonpost.com/religion/2019/07/17/ crystal-cathedral-was-monument-televangelism-its-about-become-catholic-church/ (accessed July 23, 2021).

[48] "긍정적 사고는 종교, 심리학, 주술적치료 그리고 자기강화와 같은 범주들을 혼합한 것과 같은 것이다": Catherine Bowler, "Blessed: A History of the American Prosperity Gospel" (Ph.D. dissertation of the Graduate School of Duke University, 2010) 52: https://dukespace.lib.duke.edu/dspace/bitstream/handle/10161/2297/D_ Bowler_Catherine_a_201005.pdf?sequence=1 (accessed July 23, 2021).

[49] Cathleen Falsani, "The prosperity gospel: One of the Worst Ideas of the Decade?" https://www.washingtonpost.com/wp-srv/special/opinions/outlook/worst-ideas/prosperity-gospel.html (accessed July 23, 2021).

[50] 다양한 학자들이 스포츠들을 "자연종교" "인본주의적 종교" "원초적 다신주의" 등으로 이름을 붙인다. 열광적 관중들은 다른 인간 존재들을 숭배하고, 스포츠 영웅들을 예배하며, 그들이 이루어낸 일들과 그들이 속한 팀을 숭배한다: "경기가 벌어지는 스타디움은 추종자들이 그들의 영웅들을 예배하며, 그들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성전이 된다": Danial L. Wann, *Sport fans: The psychology and social impact of spectators* (New York: Routledge, 2001) 200; from Nigel Barber, "Is Sport a Religion?": https://www.psychologytoday.com/us/blog/the-human-beast/200911/is-sport-religion (accessed July 24, 2021).

[51] Harvey Cox (Professor of Divinity at Harvard Divinity School) 는 신으로서 시장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한다: "시장의 종교" "시장 예배당" "시장 하나님" "시장의 예전" "시장 신학" "시장 하나님의 자비": Harvey Cox, *The Market as God*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2016).

[52] Grady Clay (an editor of Landscape Architecture magazine, the author of *Close-Up: How to Read the American City*) 은 뉴욕 타임즈에 "소비의 예배당" 이라는 글을 썼다 (*The New York Times* in February 17, 1985). 이 글에서 그는 William Severini Kowinski 책을 소개하면서 (*The Malling of America: An Inside Look at the Great Consumer Paradise* (New York: William Morrow & Company, 1985) 미국의 소비문화에 대한 Kowinski 의 분석을 실었다: 백화점에서 쇼핑 시간을 공유하며 물건을 구매하는 기쁨을 나누면서 소비자들은 예배자가 되었다: https://www.nytimes.com/1985/02/17/books/cathedrals-of-consumption.html (accessed July 23, 2021).

[53] Rodney Clapp, "Why the Devil takes VISA," Christianity Today, October 7, 1996: https://www.christianitytoday.com/ct/1996/october7/6tb018.html (accessed July 23, 2012).

극복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기독교의 소명적 영성을 세움으로써 기독교의 본래적 영성을 회복하고 지키는 길을 보여주려고 한다.

연구의 중요성

1.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필요 적절한 주제: 오늘날 영성이라는 말과 소명이라는 말은 인간 삶의 전반에 걸쳐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종교만이 아니라 심리, 문화, 심지어 과학분야에서도 관심을 받으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이해하고 영적 정체성과 기독교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논문 "기독교 소명적 영성"은 다양한 영적 질문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기독교인들과 교회에게 적절한 주제이다. 왜냐하면, 이 논문은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 영성의 근원, 고유하고 영속적인 근거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2. 통합적 이해: 하인츠 코헛 (Heinz Kohut) 이 자기애적 장애가 자기의 파편화와 부조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 것처럼,[54] 기독교인들의 영성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믿음, 영적 인간성 또는 영성의 부조화 또는 파편화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말, 소명과 영성이라는 말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전인격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기독교의 소명적 영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설명한다. 이 방법은 교회가 세속화된 기독교 믿음을 따라 영적 혼란을 교정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영적인 인간성에 나타난 파편화와 부조화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55]

3. 다층적 연구: 이 논문은 철학, 신학, 심리학 사회학과 성서적 이해방법들을 통합하여 설명한다. 각 장에서 주제들을 설명하기 위해 같은 주제 다른 시각을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전인적 삶으로서 기독교 영성은 삶의 다양한 양상들이 통합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인간 존재가 지닌 실존적 다양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전인적 삶으로서 기독교 영성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논문의 다층적 접근방법은 교회공동체와 개인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실천신학의 통합된 구조를 보여준다.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 교회 공동체가 각자의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의 영성과 개인의 기독교 영성을 재형성할 수 있다.

4. 실천적 방법: 영적 실천은 이론을 실재화 하는 프로그램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 활동을 드러내기 위해 실천적이고 동시대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이유로 이 논문은 기독교 용어를 가능한한 오늘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기독교의 교리적 가르침이 지닌 배타성과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다. 이는 이 논문이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찾기 위해 다층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이유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종교적인 활동을 기피하고, 세속화된 문화와 종교다원주의라는 영적 환경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동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인간의 영성과 영적 인간성에 관해 토론할 수

---

[54] Heinz Kohut, *How Does Analysis C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70.

[55] 기독교인, 소명, 그리고 영성이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하나의 주제나 혹은 두 가지 주제를 연결하여 다룬다. 예를 들면, "소명과 기독교 신앙" 혹은 "소명과 영성" 또는 "기독교 영성" 형식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이 세 가지 개념들을 통합한다. 왜냐하면, 이 세 개념들은 기독교인의 전인적 삶에서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세 개념들은 기독교인의 전인적 삶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이다.

있다. 따라서 철학적, 신학적, 심리학적, 성서적, 그리고 사회학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이 논문은 실천적이다.

논문의 전개 방법

이 논문은 전지구적 위기가 인간성의 상실에서 비롯되었다는 깨달음과, 교회의 위기가 기독교인의 영성에 깊이의 차원을 상실한 때문이라는 이해에서 출발한다. 둘 다 공통되게 인간성과 영성의 본질을 상실했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이 논문은 그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고 되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기독교 소명적 영성 형성을 위한 신학적 구조 세우기"는 기독교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방법이다.

이 논문은 다섯 장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첫째 장은 인간의 보편적 본질을 연구하는데, 이는 인간의 영적 잠재성과 실존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기독교 소명적 영성의 잠재적 가능성을 인간의 본성 안에서 찾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장은 네 종류의 자원들을 사용한다: Martin Heidegger 의 "존재와 시간"(***Being and Time***); Paul Tillich 의 "조직신학" 1 권과 2 권 (***Systematic Theology*** I, II) "존재의 용기" (***The Courage To Be***); Heinz Kohut 의 "자기 심리학" Self-Psychology;[56] 구약성경의 창세기 3 장. 두번째 장은 예수를 인간 실존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는 예수를 인간의 영적 잠재성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Paul Tillich 의 "조직신학" 2 권과 신약성경의 네 권의 복음서가 중심자료로 사용된다. 세번째 장은 인간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인 예수와 영적 관계를 맺는 실천적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된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기, 예수와 함께 일하기,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기. 이를 위해 Paul Tillich 의 신학과 네 권의 복음서가 중심자료로 사용되고, Kohut 의 심리학이 영적관계의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네번 째 장은 기독교 소명적 영성을 설명하는데, 예수의 부름과 소명을 기독교인의 인간성, 소명, 영성의 예로 인용하고, 통합적인 기독교인의 전인적 삶으로서 성화된 삶을 "예수를 따라가기"의 차원으로 설명한다. 이를 위해, Paul Tillich 의 "조직신학" 3 권 (***Systemic Theology*** III); Moltmann 의 "생명의 영" (***the Spirit of Life***) 이 중심자원으로 사용된다. 다섯 째 장은 이 논문의 결론에 해당하는데, 기독교 소명적 영성 형성을 위한 교회공동체의 구조와 리더십 그리고 교육과정과 구조를 제언한다. 이는 교회공동체가 기독교 소명적 영성을 형성하기 위해 교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다.

[56] Kohut's books are these: *The Restoration of the Self*, *the Analysis of the Self, the Restoration of self,* and *How Does Analysis Cure*?